

17~18세기 살롱(Salon) 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

김 은 하* · 정 흥 숙** · 김 선 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 의류학과 교수** ·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Influences of Salon Culture on Fashion from the 17th to 18th Century

Eun-Ha Kim* · Heungsook Grace Chung** · Sun-Hwa Kim***

Doctoral Course,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2. 10. 21 투고)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observe the influences of Salon culture on fashion, and to understand of 17th-18th century's costum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e literatures about Salons and costume in 17th-18th century were considered for this study.

Salon culture had influenced on women's and men's fashion from 17th 18th century as results.

The influences of salon culture on fashion were as follows:

At first, it caused radical feminism for women's dress. Women for this period chose their dress to maximize their breast and tight their waist radically to express their beauty. Women were realized as sexual being for the period, then, this caused feminism.

The second influence was the Androgynous of men's dress. Men maximized beautiful decoration, body line on their dress and showed feminine dress style, which caused Androgynous of men's dress as men and women mutually created new beauty effect.

Salon had influences on the birth of new feminine culture and fashion, supplying individual self-control and freedom to women not as aesthetic objects.

Key Words : Salon(살롱), Fashion(패션), Feminism(페미니즘), Androgynous(앤드로지너스)

I. 서론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순종적 역할을 강요당해 왔으며 수동적인 모습이 부각되어왔다.

특히 패션에 있어서 과거의 여성의 모습은 화려하게 꾸며져 남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급되면서 갖가지 종류의 사교의 장이 마련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살롱(salon)이 탄생하였다.

여성이 중심 인물이었던 살롱 모임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원칙에 대해 모권이 지배하는 곳으로 여성이 만들어가고 여성이 이끌어감으로써 남성 사회의 제도와는 여성들에게는 현격한 거리를 두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본 연구는 살롱 문화가 성행했던 시기의 여성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살롱 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른 시각에서 17-18세기 복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살롱이 태동하여 번성하였던 대략 16~18세기까지의 기간 중, 가장 두드러졌던 17세기, 18세기를 중심으로 살롱과 복식의 특성을 문헌 고찰한 후, 살롱문화가 복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페미니즘에 관련된 복식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성이 능동적으로 이끌었던 살롱이라는 특별한 문화 현상 속에서의 복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살롱 문화를 통한 복식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살롱

1. 살롱의 개념

일반적으로 살롱은 객실이나 응접실을 의미한

다. 복수형 salons은 사교계를, 대문자로 시작되면 미술전람회나 자동차 전시회 등을 가리키며 다과점이나 미장원을 가리키는데도 쓰이고 있다. 특히 17~18세기 문학사에서는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성행되던 귀족과 문인들의 정기적인 사교모임을, 미술에서는 살아 있는 화가나 조각가들의 연례 전람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¹⁾

살롱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4~5세기경 아테네에서는 젊은 귀족들이 스포츠클럽과 더불어 살롱에서 '향연'을 즐겼다. 클럽이 육체적 놀이 공간이었다면 살롱은 정신적, 지적 놀이의 공간이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포도주를 대작하면서 때로는 특정한 주제를 내걸고 담론과 사교를 즐기는 모습은 17~18세기 프랑스의 살롱 풍속도와 흡사하였다.²⁾

살롱이란 말은 왕정의 응접실을 지칭하는 말로 17세기 중반(1664년경), 프랑스어에 처음 나타났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간적 개념이 일차적 의미였다. 그러나 여기에 서서히 문화적 요소가 첨가되기 시작하였고 1737년 루브르의 '살롱 카페'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를 '살롱'이라 줄여서 부르게 되었다. 살롱이 공간개념에서 미술 전시회를 거쳐 문학으로 이어주는 결정적인 교량 역할을 한 것은 계몽철학자인 디드로가 18세기 중반에 미술 평론집을 '살롱'이라 부르면서였다.³⁾

2. 살롱의 등장 배경

16세기말에 여성들은 대화를 위한 새로운 배경과 제도로 살롱을 고안하였다. 원래 도시에서 귀족이나 귀족적 배경을 가진 교양있고 독서량도 많은 부인들이 운영하던 살롱에서는 남녀가 모여 사랑, 문학,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야기 등을 토론하였다.⁴⁾

이처럼 귀족 부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자기 집 객실을 문화계 명사들에게 개방, 식사를 제공하면서 문학이나 도덕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과 작품 낭독 및 비평의 자리를 마련하던 풍습으로 상용되었던 살롱은 중세 유럽의 궁정을 중심으로 하여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살롱은 역시 개성의 자유와 여성 지위의 향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에서 17세기초에 꽃피워졌다. 이는 종교전쟁을 거쳐 거칠어진 귀족들의 기질을 우아한 여성들과의 사교로 누그러뜨리고 예절과 말씨를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앙리 4세가 궁정 안에 살롱을 개최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⁵⁾

여성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여전히 몸서리치는 남자들에게서 무기를 떼어내고 그들에게 말하는 법과 매너를 가르쳤고 부드러운 법이 통치하는 여인들의 공간 속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⁶⁾

17~18세기 프랑스는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그리하여 귀족과 일부 부르주아들은 사치와 여가를 구가하며 로코코 풍의 삶의 기쁨을 즐겼다. 풍요의 시대는 취미와 교양의 시대이며 사교와 여인들의 시대였다. 이것이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프랑스에 있어 살롱과 살롱문화가 발달한 배경이었다.⁷⁾

특히 17세기 살롱은 정중한 사교를 위해 남녀를 끌어들이 지적 능력이 출신보다 우선하는 장을 만들어 예절과 그 집 여주인이 발휘하는 훌륭한 우아함을 배웠다.⁸⁾

세련된 상류사회는 훌륭한 언어, 사교적인 태도의 완벽함, 보편적인 호기심으로 특징지어지며 문화의 중심이자 도구가 되었다. 이에 여성들은 살롱을 통해 입문자의 역할 외에 가장 훌륭한 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국가 정신을 형성하였다.⁹⁾

왕정 복고기와 19세기말에 이르러 고급 살롱들은 당시의 지배적 사회 정세에 순응했던 사교적 형태의 미약한 형태는 고수하고 있으나 원래의 의도에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¹⁰⁾

3. 살롱의 특성

처음 살롱은 당대 궁정에 대한 의존과 거리 두기라는 긴장 상태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살롱은 궁정 인사들이 문예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교제하는 곳이었으므로 문단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면서 양자의 간격을 좁혀갔다. 첫째, 살롱은 귀족·시민·

지식인과 예술가, 그리고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상호 교제가 이 만남의 장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엘리트 문화를 만들어냈다.¹¹⁾

17세기와 18세기의 살롱 참여자들은 귀족 계급 일색은 아니었다. 살롱에서는 계급상의 제약을 타파하고 정신과 내면 세계가 고결하고 출생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교양인’이 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인간을 원하였다. 이로써 살롱에 출입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도 본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17세기에는 이들을 전문인으로 대접하였으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창조적인 인간이 살롱의 귀빈이 되었다. 이러한 평등적인 경향은 모든 살롱의 본질적인 특성이 되었다.¹²⁾

둘째, 살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는데¹³⁾ 이것은 살롱의 가장 큰 특징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였다<그림 1>.¹⁴⁾

살롱의 주인은 흔히 ‘살로니에르’라 불리는 여성들로 오랜 기간동안 문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달자와 화해자라는 자각적 역할을 하면서¹⁵⁾ 여성 문화의 기능성을 부각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따라서 살롱은 문화적 자유 공간이자, 지성의 여성 지대로서 변화된 의식과 변화해 가는 의식의 출발점이었다.¹⁶⁾



<그림 1> '조프랭 부인 저택에서의 저녁', 남녀가 함께 어울렸던 살롱의 모습

『계몽시대-Age of Enlightenment』,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3, p.46.

Ⅲ. 살롱과 여성

1. 살롱에서의 여성의 역할

여성들은 사교계에서 행하는 역할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였고 성장을 하였다. 17세기, 여성들은 살롱뿐만 아니라 궁전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산책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극장에도 출입하였다. 여성의 역할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심도를 더해가면서 살롱이 성행했던 17~18세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되었다.¹⁷⁾

살롱은 여성들이 대화를 위한 새로운 배경과 제도로서 고안된 것으로 전장이나 법정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않고 대화가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과 가구를 새롭게 꾸몄다.¹⁸⁾

특히 18세기는 아기자기한 실내 장식이 특징인데, 백색 바탕에 금색의 곡선적 장식을 두르고, 주제는 사랑 이야기와 같은 인간적인 내용이 애호되었다. 벽면의 장식으로는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내용의 부조로 장식되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경쾌하고 편안한 공간을 형성하였다.¹⁹⁾

이러한 실내 장식 현상은 18세기 하나의 문화로 정착, 로코코(Rococo) 양식으로 이어져 파리에서 성행되었다. 로코코 양식은 주로 실내 장식에서 쓰이는 용어로 곡선적이고 우아한, 극히 여성적인 취향을 보였다.²⁰⁾

또한 살롱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의 장이었는데 이곳에서 여성들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동시에 남성들을 교육했기 때문이었다.²¹⁾

유럽 문화사 최초의 살롱은 궁정이 아닌 저택으로 오피아 파리의 귀족 출신인 랑부에 후작 부인에 의해 1610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는데²²⁾ 이 당시에는 살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었다.

랑부에 저택에서의 모임은 귀족뿐만 아니라 시민 계층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살롱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다.²³⁾

살롱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극히 드문 공간 중의 하나²⁴⁾로서 교양있는 사람들의 품습을 확산시킨 제도이자 자신의 삶에서 종교나 아이 낳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여성들에게는 지상천국이었다.²⁵⁾

17세기 중반 이후, 살롱을 주재하던 여성들을 재녀(précieuse)²⁶⁾라 불렀다. 이 여성들 역시 순수문학, 세련된 단어 사용과 고귀한 감정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살롱은 대화의 보고였다. 재녀들의 출현은 프롱드 난(La Fronde)²⁷⁾이 끝나갈 무렵이었는 데, 이 난은 살롱의 이상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²⁸⁾ 살롱은 여성의 권리(숭배와 경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나 자립권, 또는 지식을 얻을 권리를 재확인해야 하였다. 또한 당시의 선구자들이 쟁취해 낸 일부 자그마한 성과마저 위협하던 사회 상황과 정신적 상황에 저항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미지를 복원해야 하였다. 이러한 재녀들의 반항은 전례없이 활발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페미니즘의 한 형태로 대변할 수 있다.²⁹⁾

18세기에 이르러 전통과 권위보다는 진보를 선호하는 새로운 인문주의가 등장하였다. 전통 귀족은 물론 여러 범주의 부르주아가 지적 삶에 참여하였으며 여자들도 점점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제 궁정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살롱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³⁰⁾



<그림 2> 살롱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45.

살롱의 여성들은 독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사교계에서 행하는 역할을 통해 스스로 위상을 높였고 성장을 하였다<그림 2>.³¹⁾

또한 살롱은 호화스러운 실내장식과 더불어 사

교 생활과 지적 분야의 중심지³²⁾로 여러 분야에서 전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당시 여성의 본분으로부터의 이탈의 저항으로 교육받은 여성을 ‘블루 스타킹’이라 하여 학식 있는 여성은 조소와 경멸에 부딪히기도 하였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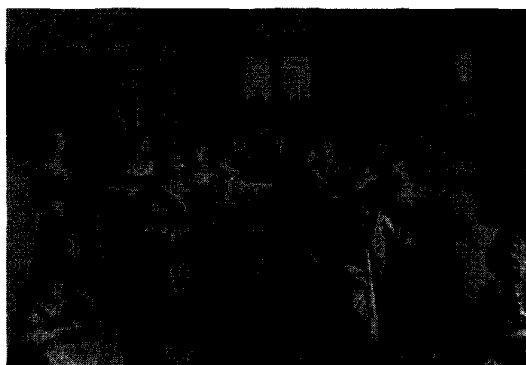
블루 스타킹이란 문학을 좋아하는 여성이나 여성문학가를 자처하는 여성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말로써, 1750년경 영국에서 재색을 겸비한 사교계의 재원 여성 등이 연 문학 살롱의 별명에서 유래되었다. 그들의 한 사람이 풍습에 맞지 않게 청색 모직 양말을 신은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³⁴⁾

더우기 살롱의 영향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조직과 여론 기관들로 발전해 가면서 1770년대부터는 상대적으로 쇠퇴해 가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지배력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³⁵⁾

2. 살롱을 주도한 대표적 여성들

1) 루이 14세 시대의 살롱의 여주인들

사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랑부예 후작 부인 (1588-1665)의 저택은 사교와 예술을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결합해 훗날 살롱의 절대적 본보기가 되었다. 최초의 여성 살롱이기도 한 이 곳이 본격적인 문화모임을 베르사유 궁정이 아닌 궁에 대한 의무와 속박에서 벗어나 파리에서 열렸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그림 3>.³⁶⁾



<그림 3> 17세기 살롱의 귀부인들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22』, 도서출판 범한, 1996, p.78.

당시 프랑스는 종교적 대립과 내란이 수습된 직후여서 상류사회는 자유롭고 유연한 새로운 기풍을 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위계와 격식이 까다로운 베르사유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장소를 모색하였다.³⁷⁾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랑부예 부인은 자신의 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궁정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장식의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전대미문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³⁸⁾

랑부예 후작 부인은 뛰어난 미모와 남다른 지성이다 예술적 재능까지 지녔었다. 그녀는 세련된 취향과 우아한 예법의 조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하여³⁹⁾ 거친 상류사회 대신 세련된 상류사회로의 변화를 원했다.

당시의 거칠고 야비한 언어풍조에 대하여 예절을 중시하고 언어의 순화와 세련에 힘썼던 그녀의 사교장은 새로운 취미와 품위의 온상이 되었다. 파리의 명사들이 모여 귀족의 품격을 되찾게 되고, 문인들도 모임을 통해 문체(文體)를 세련되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랑부예 저택에서의 모임은 귀족뿐만 아니라 시민계층에까지 확대되었고, 지방에서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같은 종류의 살롱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 문학가에게도 실사회에 나와 동참할 기회를 줌으로써 문예진흥을 촉진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⁴⁰⁾

랑부예 후작부인은 지적인 능력과 호의를 갖추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평등한 인간적인 사회를 꿈꿨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났고 가장 심각했던 상류사회 중 하나가 영위하게 될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⁴¹⁾

랑부예 저택을 본보기로 수많은 모임이 파리와 지방도시에 생겨났다. 특히 마담 드 사블레라는 다재다능한 귀족 여성이 유명한 살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문학과 관련된 살롱을 열었던 마들렌 드 스퀴텔리⁴²⁾는 ‘프्रेस시오지테(preciosité)’⁴³⁾ 역사의 이징표를 마련하면서 여러 작품을 지필하였다.⁴⁴⁾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이며 문학평론자인 샹트부르브는 17세기의 3대 천재로서 몰리에르, 라퐁텐과 더불어 여류작가인 세비네 부인을 꼽고 있다. 세비

네 부인도 살롱의 여주인이었는데 그녀의 탁자 위에는 언제나 몽테뉴의 ‘수상록’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한편 ‘클레브의 마나님’의 저자인 라 파예트 부인도 살롱의 여주인이었다.⁴⁵⁾

살롱은 여주인이 끼치는 영향력 이외에 살롱 참여자에 따라 그 성향과 특성을 결정지으면서 발전하였다.

17세기말에는 유행과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가 등장하면서 살롱의 수는 더욱 급증하였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살롱은 여전히 일군의 남녀들이 사귀는 지식의 아성으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지성의 바람이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불지는 않았으므로 곧 과학의 진보가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⁴⁶⁾

살롱은 말하자면 ‘사교인’이라는 17세기의 대표적 교양인들의 지적, 사교적인 연금장이었던 것이다.

2)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 프랑스 살롱 문화의 전성기의 여성들

프랑스 살롱 문화의 전성기는 계몽 철학의 초기 시대였다. 이러한 계몽 사상은 살롱 여성들에게 흡수되었고 대화의 살롱은 지적 삶의 토대가 되었다. 볼테르는 18세기를 ‘아름다움은 퇴색했으나 대신 지성의 여명을 밝혀주는 여성이 지배한 사회’라 하였으며 루소(Rousseau, 1712~1778)는 ‘여성이 없는 파리에서 아무 것도 이를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는 살롱 여성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배적이었나를 지적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살롱 여성들은 몰리에르가 풍자한 귀부인이나 지식있는 여성들과는 거리가 있는 지적이고 경쾌한 파트너였으며 유럽의 기질을 전파한 불멸의 여성들이었다.⁴⁷⁾

프랑스의 살롱은 비단 문학뿐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 일반 그리고 프랑스 풍 생활양식의 진정한 요람이었다.⁴⁸⁾

18세기 거의 모든 곳에서 살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1750년경부터 살롱의 수와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였다. 그곳에서의 화제도 옛날과는 달리 예술이나 도덕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과학, 정치, 사상, 사회 문제 같은 것이었다<그림 4>.⁴⁹⁾

이 시대의 살롱은 이전처럼 교육시설이나 우아함을 몸에 익히기 위한 학교가 아닌 작가나 예술가들 그리고 이들 작품의 공명관이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들도 살롱을 통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⁵⁰⁾

여러 살롱 가운데 멘 후작 부인의 살롱에서는 주로 정치 문제를 논했다. 랑베르 후작 부인의 살롱에서는 화요일마다 몽테스키외, 마리보, 라 모트 등 문학가들 외에 귀족, 여성 문필가, 여배우 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랑베르의 관심은 특히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쏠려있어서 1727년에는 ‘여성에 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글을 썼다. 그녀의 여성 해방론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살롱은 통해 표출되었으며 다른 살롱 여성들이 그녀의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았다.⁵¹⁾



<그림 4> 과학에 관심을 보였던 18세기 남녀들
「계몽시대-Age of Enlightenment」, p.21.

재치보다는 처세가 중요하였던⁵²⁾ 탕생 부인의 살롱에서는 이들 문학가들 외에도 재정가, 궁정인, 법관, 군인, 심지어 신부들도 드나들어 당시 지적 생활의 온상이 되었다. 저명한 외국 귀족들도 파리에 오면 이 살롱에 들렀으므로 각국의 문화 교류의 중심지이자⁵³⁾ 그녀의 살롱은 동등한 품격의 지성을 요구한 곳이었다.⁵⁴⁾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살롱은 여성들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⁵⁵⁾

IV. 살롱 문화와 패션

이러한 여성들의 영향력으로 상류 사회는 호감이 가는 사교 형식으로 변하였고 남성들은 여자들의 마음에 들려고 정신과 위트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⁵⁶⁾

또한 이들은 살롱에 참가한 예술가인 화가들에게 삶과 현실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려는 자신들의 초상화를 남기고자 하였다. 초상화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들은 뛰어나기보다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원했다. 이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사 숙녀들은 화장을 하고 옷을 사치스럽게 입어서 마치 자신이 예술작품인 양 치장하기를 즐겼다.⁵⁷⁾

1. 살롱 문화에서의 여성 복식의 특징

여성들은 사교계에서 행하는 역할을 통해 스스로 위상을 높였고 성장을 하였다.

살롱에서는 곱게 단장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머리에 예쁜 어깨를 드러내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들이 있었다.⁵⁸⁾

좌우로 과장되었던 여성복식의 실루엣이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면서 스커트는 긴 트레인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변하였다. 또한 스커트 자락을 위로 드레이프시켜 끌어올려 버슬 스타일을 만들어서 페티코트를 보이게 하였다. 페티코트에는 여러 층의 플라운스를 달거나 프린즈, 태슬, 브레이드 등으로 장식하여 복식미를 나타내었다.⁵⁹⁾

17세기 후반부에 자유롭고 편안한 스타일에 화려한 장식성을 보이던 여성의 복식은 18세기에 이르러 더욱 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여성 복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확립되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전을 보였던 남성 복식에 비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였다.

18세기 여성의 복식에는 의상 한 벌에 모든 장식 요소가 사용되었는데⁶⁰⁾ 주로 가슴과 스커트에 집중적으로 장식되어 수많은 꽃과 곡선이 파도처럼 약동하는 느낌을 주었다.⁶¹⁾

특히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스토머커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꽃, 리본, 조화, 꽃 모양의 루프, 웰팅, 트리밍, 플라운스, 진주, 자수 등으로 목둘레나 스커트 가장자리를 장식함으로써 의상 자체를 하나의 장식 미술로 취급하였다<그림 5, 6>.⁶²⁾



<그림 5> 18세기 화려했던 여성의 복식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44.



<그림 6> 살롱에서의 여성복식의 모습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46.

여성의 로브는 이 시기에 이르러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상체를 조이고 페티코트를 사

용하여 스커트 폭을 넓혔다. 색상도 옅은 색에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날아갈 듯이 보였고 무늬 또한 잔잔한 것으로 하여 여성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였다.⁶³⁾

18세기 인간적 정취가 풍기는 살롱에서의 생활은 복식과 실내장식을 자극하여 바로크의 의식적인 아름다움은 자취를 감추고 환상과 우아함으로 여성적인 취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섬세한 여성적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 요소로써⁶⁴⁾ 살롱의 여성들에게 유행하였다.

2. 살롱 문화에서의 남성 복식의 특징

17세기, 바로크적 취향으로 여성복은 과대 장식으로 화려함을 주면서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복에 더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남성들의 옷차림은 마치 여성복을 입은 것과 같은 양상을 띠었다.⁶⁵⁾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었던 뿌르푸앵이 짧아지면서 상의로써 특성을 잃어감에 따라 1670년경에는 무릎길이에 칼라가 없는 허리가 험렁한 스타일의 쥐스토코르가 등장하였다.⁶⁶⁾

이것은 마치 현대 여성들이 착용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원피스 형태였다.

그 후, 차츰 허리가 꼭 맞고 양옆에 주름을 잡아 주어 아래로 퍼지는 형태로 변화하던 쥐스토코르는 허리선이 뚜렷해지면서 아래단이 플레이지게 재단되기 시작하였다.⁶⁷⁾

또한 쥐스토코르에 달린 커프스도 소매 안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좁아지며 팔꿈치 부분에서 팔목까지 늘어지도록 많이 접힌 원형의 플레이로 갑자기 넓어졌다.⁶⁸⁾

18세기에는 로코코 예술 양식이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번져나가면서 살롱의 모습도 전 시기에 비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다.⁶⁹⁾

이에 남녀를 중심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즐겼던 살롱 문화는 점차 사치스럽고 경박한 풍조로 이어졌으며 복식에도 향락과 방종의 에로틱한 의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화려한 복장에 화장을 하는 환락의 시대로 변하여 갔다.⁷⁰⁾

이러한 경향으로 남성복은 더욱더 여성적인 우아함을 띄게 되었으며 특히 허리를 조이는 경향이 적용되면서⁷¹⁾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의 남성복을 탄생시켰다.

18세기 쥐스토코르는 양쪽 옆선에 3개 내지 6개의 주름이 있어서 넓게 퍼지고 허리선 아래 부분에 풀먹인 심을 넣고 도련에 고래수염·말총·철사 등을 넣어 뻗치게 하였으므로 남자 복식의 형태가 여자 복식과 조화를 이루면서⁷²⁾ 여성들의 실루엣과 닮아있음을 주목할 만하다<그림 7>.⁷³⁾

쥐스토코르의 앞면이나 아래단은 커프스와 매치하여 수를 놓았는데, 전면의 화려한 자수, 곡선적인 실루엣은 여성적인 유연함과 은은한 분위기를 더한 것이었다. 이러한 복식의 곡선적이고 여성적인 취향은 로코코의 우아한 살롱 문화 안에서 더욱 세련되어졌다.⁷⁴⁾

남성의 헤어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기에는 남성들의 머리가 길어지고 웨이브를 하게 되었다. 이후 좀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발을 사용하였는데 복식 사상 이와 같이 여성스러운 머리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그림 8>.⁷⁵⁾



<그림 7> 여성적인 실루엣의 쥐스토코르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8> 긴머리 가발을 쓴 남성의 모습
『A History of Extraordinary Hair』



<그림 9> 노출된 목선과 가는 허리로 여성성을 강조한 의상,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38.

3. 살롱 문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

옷은 나체의 장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중심이 되었고 아름다움의 이상도 옷에 의해 만들어지고 옷에 의해 집중적으로 표현되면서 육체가 무시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였다.⁷⁶⁾

이러한 시대상을 타고 사상적으로 이성 만능의 시대이며 사회적으로 향락 추구의 사회였던 18세기에는 이르러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해지면서 섬세한 곡선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1) 여성 복식의 페미니즘 현상

루이 14세 시대와 계몽주의 시대는 궁정을 문화의 시대이자 아름다운 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살롱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루이 14세부터 16세기까지는 의복 생활이 그들의 향락 생활과 같이 극치를 이루었다. 살롱에서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남성들을 매혹시키는 화술, 세련된 몸짓을 익혀갔고 철학, 문학, 도덕, 풍속, 생활, 감정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⁷⁷⁾

이 당시 여왕과 살롱의 부인들에 의하여 유행이 주도되었는데 가슴을 깊이 파고 허리는 졸라매고 험 부분을 펼침으로써 여성적인 곡선미를 의식적으로 강조하였다<그림 9>, <그림 10>.⁷⁸⁾



<그림 10> 깊게 파인 네크라인의 여성복식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38.

여성 주도의 로코코의 여성적 취향은 여자 복식에 한층 더 섬세한 곡선과 지나친 장식을 주면서 새로운 모드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여성의 성을 축으로 성별의 이질성을 주장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신(新)페미니즘 운동으로써 남녀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이질성을 받아들이면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은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 경향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이었다.⁷⁹⁾

여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는 육체의 모습을 더욱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고 더욱 요염하게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과 의상으로 표현하였다.⁸⁰⁾

이처럼 살롱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많은 종류의 복식을 유행시켰다.

로코코 시대의 복식은 전체로서의 인간을 분해하여 인체에서 관능의 도구로서 탁월한 기능을 하는 곳만을 나타내거나 과장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었다. 로코코 복식은 육체의 에로티시즘을 강화하기 위해 발견한 세련된 결정체였다.⁸¹⁾

살롱의 주체였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의상을 선택하여 가슴, 허리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여성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페미니즘의 과장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남성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

앤드로지너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앤드로스(Andros)는 남자를, ‘지나케아(gynacea)’는 여자를 뜻하며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적인 옷차림새로 남성 지향을, 남성은 여성적인 옷차림새로 여성 지향을 추구하며 즐긴다는 뜻이다.⁸²⁾

특히 20세기에 들어 남성과 여성의 우수한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양성성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남성복식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모습으로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⁸³⁾

그러나 이미 과거의 남성 복식에서 앤드로지너스 경향이 나타났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살롱 여성들의 복식과 생활상이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살롱을 중심으로 한 모드의 경향은 궁정 중심의 엄격함을 잃고 기묘한 감각을 좋아하는 움직임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었다.⁸⁴⁾

이에 세련된 취미와 교양을 갖춘 이상적인 ‘사교인’이 등장하였는데 이 사교인은 바로 살롱을 모태로 태어났다. 사교인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덕목 중에서 특히 바람직했던 것은 ‘여성에 대한 예절’이었다.⁸⁵⁾

이와 같이 사교인으로써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존경심, 다양하고 화려한 여성복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성복은 점차 여성화 경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허리를 가늘게 졸라서 신체를 표현하는 미적 형식은 지금까지 여성복의 발달 중에서 기본이 되었던 실루엣으로 유지되어왔으나 17세기 후반부에는 남자 복식의 기본 실루엣으로 적용되었다.⁸⁶⁾

남성의 복식 중에서 17세기 후반기에 등장한 쥐스토코르는 18세기 시대상이 반영하면서 여성 의복처럼 허리가 들어가고 험으로부터 단까지 불륨을 주어 넓혀진 것으로 변화되었다. 후에는 더욱 팽창되면서 험에서 단까지 생성된 곡선이 여성 의상과 보조를 맞출 정도로 아름다워졌다. 쥐스토코르에는 화려한 자수 장식과 단추들이 달려있었는데 허리 부분만 단추를 끼워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성적인 곡선이 더욱 강조되었다.<그림 11>, <그림 12>.⁸⁷⁾

또한 값비싼 직물에 금사로 수놓아 장식하거나 화려한 꽃 자수, 커프스와 포켓의 플랩 등에 브레이드 장식, 소매의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을 하는 등 여성의 복식만큼 다양한 장식 요소가 쥐스토코르에 사용되었다.

이 시대 이상적인 남성상 역시 미청년의 이미지였다. 이에 어깨는 좁게 하고 반대로 옷자락을 넓혀 곡선을 강조한 복식은 이 당시 여성의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착용했던 파니에의 유행에 대응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⁸⁸⁾

이와 같이 17~18세기에 등장한 남성복 가운데 쥐스토코르는 아름다운 장식과 여성적인 곡선을 강조하면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남성의 여성적인 옷차림새는 살롱 문화의 영향으로써 남성복식에 등장한 여성성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미적 효과를 창출한 남성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 화려한 자수 장식의 쥐스또코르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56.



<그림 12> 18세기 남성복식의 모습
『20,000 Years of Fashion』

V. 결 론

살롱은 여성들에게 미적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급하면서 새로운 여성 문화를 탄생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살롱이란 말은 왕정의 응접실을 지칭하는 말로 17세기 중반 프랑스어에 처음 나타났다. 16세기말에 여성들이 대화를 위한 새로운 배경과 제도로 고안한 살롱은 17~18세기 문학사에서는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성행되던 귀족과 문인들의 정기적인 사교모임으로 변화되었다.

살롱의 여성들은 종교전쟁을 거쳐 거칠어진 남성들에게 말하는 법과 매너를 가르쳤으며 살롱은 문화의 중심이자 도구가 되었다. 살롱을 통해 여성들은 입문자의 역할 외에 가장 훌륭한 전파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정신을 형성하였다.

살롱은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엘리트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롱의 여성들은 호화로운 실내장식과 더불어 사교 생활과 지적 분야의 중심지로 여러 분야에서 전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7~18세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사 숙녀들은 화장을 하고 옷을 사치스럽게 입어서 마치 자신이 예술작품인 양 자랑하기를 즐겼다.

여성의 경우, 인간적 정취가 풍기는 살롱에서의 생활이 복식과 실내장식을 자극하여 환상과 우아함으로 여성적인 취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섬세한 여성적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 요소로써 살롱의 여성들에게 유행하였다. 여성의 복식은 이 시기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즐겼던 살롱 문화가 점차 사치스럽고 경박한 풍조로 이어지면서 복식에도 향락과 방종의 에로틱한 의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남성에게 적용되면서 남성복은 더욱 여성적인 환상과 우아함을 띄게 되었다. 특히 남성들도 허리를 조이는 경향이 적용되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의 남성복을 탄생시켰다. 남성복의 곡선적이고 여성적인 취향은 로코코의 우아한 살롱 문화 안에서 더욱 세련되어졌다.

이와 같이 살롱 문화는 17~18세기 여성과 남성의 복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살롱이 패션에 미친 영향으로 첫째, 여성복식의

페미니즘 극단화 현상을 들 수 있겠다. 살롱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식을 선택하여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였으며 이 시기 복식은 육체의 에로티시즘을 강화하기 위한 세련된 결정체였다. 이처럼 여성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페미니즘 극단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성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살롱의 움직임은 남성들의 역할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존경심과 다양하고 화려한 여성복과 접촉은 점차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가져왔다.

남성복은 아름다운 장식과 곡선을 강조하면서 여성적인 옷차림새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미적 효과를 창출한 남성 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남성에 의해 수동적인 복식관을 보여왔던 여성들은 살롱을 통해 자유와 지위적 향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롭고 다양한 유행을 창조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러한 살롱의 영향력으로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남성복식에도 여성스러운 패션 요소를 유행시키는데 역할을 함으로써 17-18세기 새로운 복식의 유행을 탄생시켰다.

참고문헌

- 1)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5856>
- 2)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3) 하이텐-린쉬, 김종대, 이기숙 譯(1999). *유럽의 살롱들*. 서울 : 민음사, 1999, p.13.
- 4)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조형준 譯(1999). *여성의 역사 3-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역설*. 서울 : 새물결, p.555.
- 5)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5856>
- 6) G. 트뤼, 이재형, 도화진 譯(1995). *세계 여성사 2*. 서울 : 문예 출판사, p.32.
- 7)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8) G. 트뤼. *앞의 책*, pp.15-16.
- 9) *위의 책*, p.21.
- 10) 하이텐-린쉬. *앞의 책*, p.11.
- 11) *위의 책*, p.12.
- 12) *위의 책*, p.42.
- 13) 스페인 문명은 다른 나라의 초기 살롱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여성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금기가 극심했던 스페인에서는 살롱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 14)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560.
- 15) 하이텐 린쉬. *앞의 책*, p.10.
- 16) *위의 책*, p.10.
- 17) G. 트뤼. *앞의 책*, pp.32-33.
- 18) 조르주 뒤비, 미셸 페로. *앞의 책*, pp.555-556.
- 19)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Art>
- 20) 캐롤 스트리랜드, 김효경 譯, (2000). *클릭, 서양 미술사*. 서울 : 예경, p.146.
- 21)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p.561-562.
- 22) 하이텐-린쉬. *앞의 책*, p.12.
- 23)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
- 24)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559.
- 25) 카리 우트리오, 안미현 譯(2000). *이브의 역사*. 서울 : 자작, pp.162-164.
- 26) 재너 :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여 남성들의 빈정거림에서 나온 말이었다.
- 27) 1648~1653년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내란으로 섭정 모후(母后) 안 도트리슈와 재상 마자랭을 중심으로 한 궁정파에 반대한 최초의 시민혁명의 시도, 파리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관직보유층(官職保有層)의 반절대왕정(反絶對王政)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 28) 프롱드 난 동안 여성들은 실제로는 국가의 지상 이익에 맞서 귀족 계급의 물질적·계급적 이익을 방어했을 뿐인데, 널리 만연한 무질서를 이용해 본능만을 충족시키고 이미지를 지키려는 일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 29)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574.
- 30) 송재영 외(1996). *프랑스 문화와 예술*. 서울 : 새길, p.174.
- 31) G. 트뤼. *앞의 책*, p.32.
- 32) 조루주 뒤비, 로베르 망드루, 김현일 譯(1995). *프랑스 문명사 1*. 서울 : 까치, p.551.
- 33) 안혜련(2001). *페미니즘의 거울*. 서울 : 인간사랑, p.70.
- 34)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0997>
- 35) 콜린 존스, 방문숙, 이호영 譯(200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프랑스사*. 서울 : 시공사, p.208.
- 36) 하이텐-린쉬. *앞의 책*, pp.37-40.

- 37)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38)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566.
- 39) 하이덴-린쉬. *앞의 책*, pp.37-40.
- 4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
- 41) G. 트뤼프. *앞의 책*, pp.16-19.
- 42) 죽음, 여성교육, 궁정에법정신, 문학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키로스 대왕'이라는 연작소설 공동 집필. 프랑스 사회의 생활 습관과 문학 살롱을 상세히 묘사하는데 역점을 둔 '클레리', 감상주의와 인간 내면연구를 주제로 한 실화소설 '애정지도' 등을 집필
- 43) 서술 방식이 인위적이고 장식적인 어법으로 허식과 무의미한 어구, 세련된 재치를 말하며 프레시오디제가 유행하면서 방대한 연애모험소설이나 발자크의 소설, V.부아튀르의 서한문학 등 사고 중심의 살롱문학이 탄생하였다
- 44) 하이덴-린쉬. *앞의 책*, pp.42-44.
- 45)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46)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573.
- 47) 하이덴-린쉬. *앞의 책*, pp.58-60.
- 48)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49) <http://www.france.co.kr/literature/societe.htm>
- 50) 나탈리 제몬 데이비스, 아를렛 파르주 편집. *앞의 책*, pp.588-589.
- 51) 하이덴-린쉬. *앞의 책*, p.69.
- 52) G. 트뤼프. *앞의 책*, p.94.
- 53) <http://www.france.co.kr/literature/societe.htm>
- 54) 하이덴-린쉬. *앞의 책*, p.75.
- 55) 로버트 램, 이희재 譯(2001). *서양문화의 역사 III*. 서울: 사군자, p.39.
- 56) 막스 폰 빈, 이재원 譯(2000). *패션의 역사 I*. 서울: 한길아트, p.398.
- 57) 막스 폰 빈, 이재원 譯(2000). *패션의 역사 2*. 서울: 한길아트, p.45.
- 58) G. 트뤼프. *앞의 책*, p.46.
- 59) 신상옥(199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p.205-206.
- 60) 정홍숙(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43.
- 61) 백영순, 조효순(199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p.293.
- 62)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fashion/>
- 63) 정홍숙. *앞의 책*, p.242.
- 64) 데콜타즈와 가는 허리, 풍만한 힙, 화려한 머리장식과 리본, 레이스, 프릴 등 아름다운 낭만풍의 새로운 모드를 형성하면서 우아함을 추구하였다.
- 65) 정홍숙. *앞의 책*, p.206.
- 66) 백영자 · 조효순. *앞의 책*, p.266.
- 67) 신상옥. *앞의 책*, pp.193-194.
- 68) 블랑쉬 페인, 안혜준 외 譯(1988).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p.400.
- 69) 정홍숙. *앞의 책*, p.235.
- 70) 한순자 외(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예학사, pp.99-100.
- 71) *위의 책*, p.242.
- 72) 신상옥. *앞의 책*, p.223.
- 73)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440.
- 74) 정홍숙. *앞의 책*, p.257.
- 75) 백영자, 유효순. *앞의 책*, p.272.
- 76)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 박동만 譯(1984). *풍속의 역사 III - 색의 역사*. 서울: 까치, p.52.
- 77) 이정옥 외(1995).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 출판사, p.211.
- 78) 한순자 외. *앞의 책*, p.106.
- 79) <http://www.samsungdesign.net/Knowledge/History/Art/>
- 80) 에두아르트 폭스. *앞의 책*, p.109.
- 81) *위의 책*, p.63.
- 82)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02434>
- 83) 송명진, 채금석(2001).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2), p.136.
- 84) 김경옥(1996). *서양복식사*. 서울: 양서각, p.140.
- 85) <http://www.teabox.net/magazine/07/webzine03.htm>
- 86) 김경옥. *앞의 책*, p.136.
- 87) 이정옥 외. *앞의 책*, pp.214-216.
- 88) *위의 책*, p.144.